

미-중 디커플링이 미국 의료기기산업에 미치는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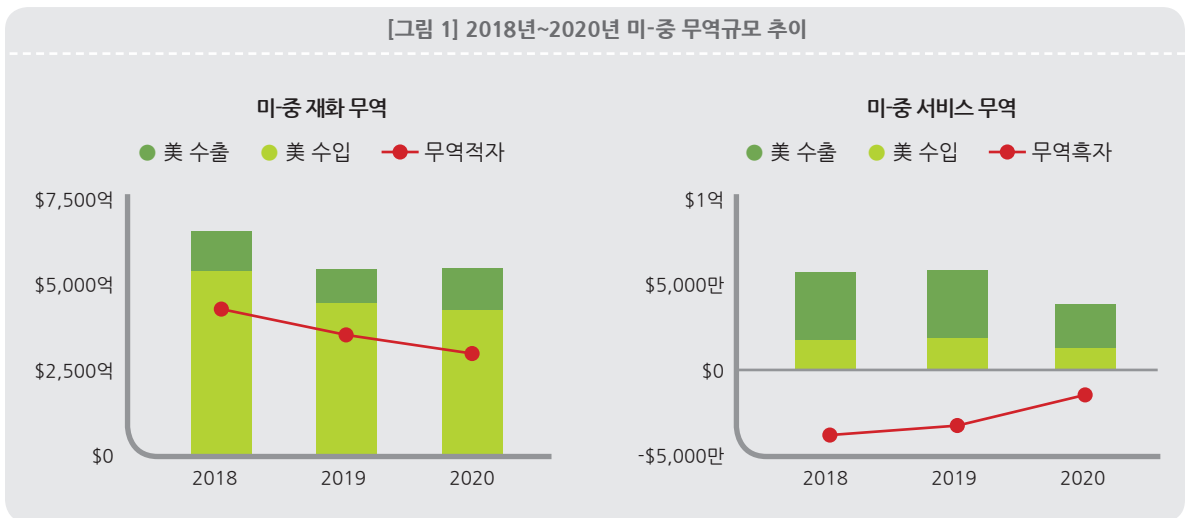
염지원 과장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부문
오기환 전무 한국바이오협회

1. 미국-중국 디커플링 개괄

1) 미국-중국 교역 현황

- 2020년 기준 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국(6,595억 달러)으로 수출국으로는 3위(1,203억 달러), 수입국으로는 1위(5,392억 달러)임.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,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1,038억 달러 감소하였고 서비스무역은 35% 감소하였음.

[그림 1] 2018년~2020년 미-중 무역규모 추이



출처: CRS(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), U.S.-China Trade Relations, IN FOCUS, 2021. 2. 16.

- 중국은 코로나19 이후에도 15조 달러 경제 규모로 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, 무역분쟁 이전에 미-중 무역 규모는 7,371억 달러였으며 양국 직접투자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,860억 달러였음.

- 미국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책임론, 국가안보, 보조금, 인권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를 문제 삼아 중국 무역 갈등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임. 미국 무역대표부(USTR) 캐서린 타이 대표는 중국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미국 제품 구매 이행 여부를 조사할 것임을 발표함¹⁾

2) 미국-중국 디커플링 및 그 영향

- 2018년 미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본격 촉발된 중국 무역전쟁으로부터 이어져 온 미국의 중국 디커플링(탈동조화)은 바이든 행정부로도 이어지고 있음.
- 미-중 무역에 미통상법 301조 25% 관세가 부가되면 2025년까지 연간 GDP 1,900억 달러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 중국 시장 진입의 축소로 인한 소득, 일자리, 규모의 경제, 소규모 R&D의 감소 효과까지 감안하면 손실은 더욱 커짐.
- 중국 내 미국 직접투자(FDI)가 절반으로 축소되면 미국 투자자들은 연간 250억 달러 자본 손실이 예상되고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(FDI)가 미국에서 경쟁국들로 이동하면서 상대적 영향이 발생함.
- 코로나19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중국인 관광 및 유학이 감소되면 미국 서비스 수출은 연간 150억~3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임.
- 미국에서 연구개발하고 중국에서 생산하던 기업 활동이 분리되면 미국, 중국 및 제3국으로부터의 R&D 투자를 현재만큼 유치하기 어려워질 것임.

2. 의료기기분야 미국과 중국간 영향력

1) 미국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중국의 영향력

- 미국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1,767억 달러로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약 40%를 차지²⁾하였으며, 2018년 기준 430억 달러 수출과 30만 명의 국내 직접고용 및 200만 명의 간접고용을 발생시킴.
- 미국 의료기기 시장은 대부분 미국 국산 제품으로 공급되고 있으나,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조립 부품 등의 수급은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음.
 - 중국은 특히 미국 의료장비 및 부품 공급자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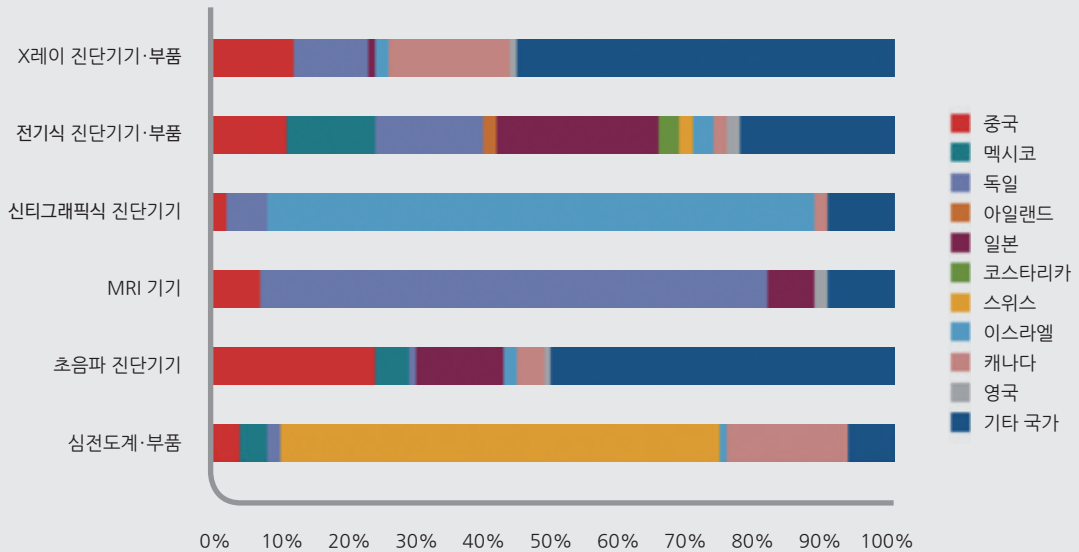
1) "US to keep China's trade-deal performance under the microscope," South China Morning Post, 2021. 4. 29.

2) 2020년 기준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4,100억 달러.

2018년 기준 중국으로부터 약 22%를 수입하고 있음.

- 반면 일본, 독일, 이스라엘, 스위스 등 다른 국가들의 대미 의료기기 수출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수출이 지배적인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임.
- 미국 첨단의료기술협회(AdvaMed)에 따르면 미국 의료기기 시장에서 중국 수입 비중은 3.3%인 것으로 나타남.

[그림 2] 2018년 미국 의료기기 품목별 수입국 비중



출처: 미국상공회의소 중국센터, Understanding U.S.-China Decoupling: Macro Trends and Industry Impacts, 2021.

2) 중국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미국의 영향력

- 중국은 GE, 필립스, 지멘스와 같은 첨단 장비 회사로부터 수입 의존도가 높아 2018년 기준 시장의 약 28%를 차지하는 220억 달러의 의료기기가 수입됨.
- 중국 대형 공공병원에 조달되는 의료기기 매출의 75%는 미국 회사의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. 중국 의료기기 시장은 70% 이상이 병원 공공조달임.
- 중국의 의료기기 시장은 2018년 기준 미국 다음으로 큰 788억 달러 규모로 지난 몇 해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이 연간 5.3% 성장하는 동안 중국은 연간 약 20%의 성장률을 기록함.³⁾

3) 2014년부터 2018년 평균치 기준.

- 중국 의료기기 시장에서 미국 FDI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170억 달러로, 중국 내 FDI의 6%에 해당함. 중국에서의 의료기기 제조는 저렴한 생산 단가와 용이한 내수시장 접근 등의 이점이 있음.

3. 미국-중국 의료기기 디커플링 정책

1) 미국의 의료기기 정책

-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하며 2018년부터 의료기기를 포함한 중국 수입품에 대해 통상법 301조 하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.
-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기기를 포함한 중국산 품목에 25% 관세 목록을 지정하면서 미국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수입하는 부품 등의 가격 상승이 곧 완제품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이는 전 세계 병원과 환자에게 부담으로 이어지는 영향이 발생할 것임.
- 미국액션포럼(American Action Forum, AAF)에 따르면 2018년 미통상법 301조 관세의 여파로 55종의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18억 달러 수입 감소와 4억 달러 의료기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.
-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의료기기 중 진단기기는 절반(연 4억 5,700만 달러), 수술기구 중 14%(연 1억 2,300만 달러), 의료용 일회용품 중 11%(연 1억 1,100만 달러)가 통상법 301조 관세의 영향을 받음.
- 미국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의료기기에 대해 공급망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중국에서 생산되던 의료기기를 자국 산업에서 생산하도록 노력하고 있음.
-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긴급 보건의료와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 내 의료용품 공급을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음. 이러한 행정명령은 공공조달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미-중 간에는 특별히 큰 영향이 없음. 그러나 연방정부의 바이아메리칸 등의 정책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외국산 제품을 조달하기가 더욱 어려워짐.
- 중국은 미국과의 1단계 합의 이후 일부 산업의 관세를 인하하였음. 의료기기의 경우 분류체계가 상이하여 보복관세의 영향을 받는 미국 의료기기 수입품 파악이 어렵지만, 2018~2019년 부과된 관세로 중국에 수출되는 미국산 의료기기의 거의 전체가 관세의 영향을 받음.

2) 중국의 의료기기 정책

- 중국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국산화를 위해 지난 2015년 '중국제조 2025'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10대 전략산업⁴⁾에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를 포함시켰음.
- 중국은 1)의료영상기기, 2)임상검사기기, 3)첨단치료기기, 4)재활 및 모니터링 장치 등 네 가지 첨단 의료기기 분야에서 2020년까지 지방 병원 내 의료기기의 50%, 2025년까지 70%, 2030년까지 95%를 국산화 하는 목표를 제시함.
- 동 목표달성을 위해 중앙정부는 펀딩 및 조세지원을 통해 국내 챔피언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음.
 - 전기생리학 및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에게는 기업소득세를 기존 25%에서 15%로 감면, 디지털 진단 및 치료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R&D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본 투자도 지원
- 미국 의료기기 업체가 중국 판매로부터 얻는 수익의 약 75%는 대형 공공병원으로부터 나오는데, 해외 의료기기 회사들은 중국 현지 중개인을 통해 대형병원에 납품하고 있어 리베이트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. 또한, 지방 정부는 해당 지역 공공병원에서 최대 80%의 지분을 국산 의료기기로 구매하도록 하거나 국산제품 구매에 보상을 주기도 함.
-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중국이 WTO 정부조달협정(GPA)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역협정 위반은 아니며 중국은 국내 시장이 유리하도록 공공조달 체계를 개편하고 있어 외국 회사들에게 불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.
- 중국 정부는 최근 헬스케어산업 공공조달 이니셔티브를 통해 성급 지방 내 모든 병원을 의료기기 입찰제도(tendering)에 참여시켜 물량을 확대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이며 장기적으로는 리베이트를 축소시키고자 하고 있음.
 - 중국 안후이성에서는 2019년 공공병원이 합동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국내 정형외과와 안과 치료기기 가격이 각각 50%와 20% 인하되었음.
 - 2020년 11월에 중국은 이러한 의료기기 입찰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심장 혈관 스텐트의 경우 가격이 60% 하락함.
- 이러한 중국 정부의 국산 의료기기 물량 및 가격 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인해 미국 의료기기 판매사들은 중국 시장 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.

4) 중국제조 2025 정책은 2015년부터 2045년까지 세 단계에 걸쳐 핵심 분야의 산업고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대 과제, 10대 전략산업, 5대 중점 프로젝트를 제시함.

4.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미국 의료기기산업계에 미치는 영향

-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의료기기 부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산 의료기기의 가격 경쟁력 하락은 상대적으로 유럽, 일본 등 제3국 제품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하며, 중국 시장 진입에 있어서도 이들 국가들이 미국보다 유리해 질 수 있음.
- 미국산 의료기기의 중국 수출의 경우에도, 중국 시장 내 진입하는 미국 의료기기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산 의료기기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는 영향을 받게 됨.
- 미국의 지속적인 반중국 정책으로 인해 중국 공급망이 축소되고 중국 제품의 수입이 감소되면 중국 정부 또한 상응하는 보복관세 뿐 아니라 자국 공공 병원들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지시하면서, 미국산 하이테크 의료기기를 대체할 수 있는 기타 선진국 제품으로 대체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음.
- 따라서, 미국의 중국 디커플링이 계속되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미국산 의료기기들이 높은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로 인해 미국의 의료기기 수출이 위축되고 투자가 감소하여 유럽, 아시아 등 타 경쟁국가의 의료기기 산업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.

< 참고자료 >

1. CRS(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), U.S.-China Trade Relations, IN FOCUS, 2021. 2. 16.
2. Grand View Research, U.S. Medical Device Manufacturers Market Size, Share & Trends Analysis Report By Type (Diagnostic Imaging, Consumables, Patient Aids, Orthopedics), And Segment Forecasts, 2021 - 2028, 2021. 1.
3. 미국상공회의소 중국센터, Understanding U.S.-China Decoupling: Macro Trends and Industry Impacts, 2021.
4. 한국무역협회, 미·중 무역분쟁의 최근 흐름과 중국 수입시장의 영향, KITA 통상 리포트, Vol.14, 2020.
5. "US to keep China's trade-deal performance under the microscope," South China Morning Post, 2021. 4. 29.

Writer

엄지원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부문, 과장
jwyeom@koreabio.org, 031-628-0031

Reviewer

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, 전무

BIO ECONOMY BRIEF

발행 : 2021년 5월 | 발행인 : 고한승 | 발행처 :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
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(삼평동, 코리아바이오파크) C동 1층, www.koreabio.or.kr
* 관련 문의 :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e-mail : Koreabio1@koreabio.org



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
KOREA BIO-ECONOMY RESEARCH CENTER

Innovating Data Into Strategy & Business



9 772508 681005 09
ISSN 2508-6812